

JOB아라, 새 희망... 시간선택제에 답있다

고용부 '2015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가보니

일·가정 두토끼 잡기...경력단절여성·주부 몰려 '새 고용트렌드' 근무 시간·급여 등 꼼꼼히 질문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직자(경단녀), 학업과 일 두 가지를 잡으려는 구직자 모여라'

지난 30일 찾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주부, 중년남성 등 구직자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74개 업체가 참여한 '2015년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40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룬 이날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단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 상담 코너에 많은 구직자가 몰려들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경단녀), 학업과 일 두 가지를 잡으려는 구직자 모여라'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겨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구직자, 힘든 집안 일 속에서도 시간을 내 직장에 다니려는 가정 주부 등 직장인 여성들의 발걸음은 광주YMCA, 아롱기공(주), ㈜크린토피아 광산지사 등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24개 업체로 몰려들었다.

학업과 일,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들은 근무 가능한 시간과 급여 등을 꼼꼼히 질문했다. 박람회 참가 업체들도 꼭 필요한 기간(시간)만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뒤따랐다.

이날 만난 결혼 20년차 주부 김정화(46·광산구 우산동)씨는 질병 치료차 오랜 기간 다녔던 의료 수선업체를 그만뒀다가 재취업을 결심하고 박람회장 찾았다. 그는 이날 의류세탁 및 수선업체 ㈜크린토피아 광산지사 상담 코너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면접까지 치렀다. 김씨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병원 치료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 선택이 가능한 업체로 취업하고 싶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지금 내게 처한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마련한 '2015 광

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구직자 1000여명이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상담한 뒤 면접까지 진행되는 등 구직자들의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한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노후 일자리를 찾는 장·노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본인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1주 15~30시간)을 정해 일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이 근로조건과 연차·월차 수당 등 복리후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분기(1~3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승인받은 광주지역 사업장은 52곳(구인 1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136명)에 비해 246.6% 급증할 정도로 업체와 구직자 양측에서 관심이 높아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시모집 늘어 더 중요해진 학생부

2017 대입 전형계획 내용

광주·전남 대학 모집인원 줄어

4년제 21개대 2만4237명 선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시모집 비율이 증가다. 수시모집은 69.9%로, 10명 중 7명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셈이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커졌다.

장광재 승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수시모집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전형요소별 장단점을 잘 분석해 맞춤형 입시전략을 짜야 한다"며 "대신과 수능 준비는 기본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강화돼 1학년 때부터 비교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부 관리 등 수시 맞춤형 전략 짜야=2017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이 3.2%포인트나 높아졌지만, 수시 관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치·한의예과는 전년보다 31명 증가한 646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광주·전남지역 의·치·한의예과는 109명(전남대 27명, 조선대 74명, 동신대 8명)을 선발한다.

고, 자사고 및 지역 명문고 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고 학생들은 비교과 관리보다 전과목 학교 내신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필수과목 한국사는 영향 크지 않을 듯=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반영은 최소화된다. 절대 평가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각 대학도 점수 반영 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낮고 등급 간 점수차도 크지 않아 한국사의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고교서를 중심으로 틈틈이 준비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모집인원 444명이나 줄어=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교 21개교에서는 2만4237명을 뽑는다. 지난해(2만5208명)보다 971명 줄어든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남대는 전년보다 444명이나 줄어 4182명을 선발한다. 조선대 4630명(전년 대비 -3명), 순천대 1794명(-176명), 광주대 1776명(-40명), 목포대 1706명(-127명), 동신대 1687명(-25명), 호남대 1649명(-109명) 등으로 지역 주요대학 모두 모집인원을 줄인다. 3명이 준 조선대는 전년도에 강한 구조조정으로 583명을 줄였다.

광주과기원과 광주교대는 각각 200명과 353명으로 2016학년도와 같다.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선발 규모는 1만120명으로 전년보다 140명 확대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치·한의예과는 전년보다 31명 증가한 646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광주·전남지역 의·치·한의예과는 109명(전남대 27명, 조선대 74명, 동신대 8명)을 선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2017학년도 입학 전형'

구분	대학명	수시		정시(가)		정시(나)		정시(다)		합계	2016 모집인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국립	목포대	766	508	132	-	-	-	300	-	1,706	1,833
	목포해양대	-	480	210	-	67	-	-	-	757	755
	순천대	850	389	74	-	-	-	481	-	1,794	1,970
	전남대	1,809	873	783	6	711	-	-	-	4,182	4,626
	광주과기원	155	20	-	-	25	-	-	-	200	200
	광주교대	140	70	-	-	143	-	-	-	353	353
사립	광신대	-	104	-	43	-	-	-	-	147	146
	광주가톨릭대	10	14	16	-	-	-	-	-	40	40
	광주대	1,351	299	-	-	126	-	-	-	1,776	1,816
	광주여대	816	67	37	-	24	-	-	-	944	943
	남부대	604	123	24	1	29	2	-	-	783	755
	동신대	1,388	170	51	-	-	-	78	-	1,687	1,712
	목포가톨릭대	97	20	20	-	-	-	-	-	137	137
	세한대	749	229	114	-	42	-	-	-	1,134	1,193
	송원대	599	154	59	2	29	3	-	-	846	862
	영산선학대	-	24	-	-	-	-	-	27	51	52
	조선대	2,258	978	647	41	706	-	-	-	4,630	4,633
	초양대	700	89	8	-	17	-	37	-	851	844
한려대	335	20	-	-	55	-	-	-	410	410	
호남대	1,028	564	-	-	57	-	-	-	1,649	1,758	
호남신학대	118	-	25	-	12	5	-	-	160	170	
합계	13,773	5,195	2,200	93	2,043	10	896	27	24,237	25,208	



'2015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광주시·광주고용노동청 등 공동 주최로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구직자 4000명이 박람회장 찾은 가운데 지역업체 74곳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등 400여 개의 일자리 채용상담이 이뤄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 멈춘 한빛원전 3호기 불량부품 확인

제어카드 결함으로 오작동

한빛(영광) 원전 3호기가 재가동 4일 만에 갑자기 멈춰선 데는 '불량' 부품(제어카드)이 설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가동 중단된 한빛원전 3호기는 냉각재 펌프에 명령을 내리는 제어카드(제어회로) 내 결함으로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서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제어카드 오신호 경위를 분석한 결과, 새로 설치한 제어 카드가 다른 설비와의 호환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불량'인

사실을 확인했다. 2차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설치한 제어카드는 지난해 10월 한빛 3호기 정비 기간에 교환·설치한 것으로, 두산중공업 산하 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제어카드 제작 결함을 한빛 3호기 가동 중단 원인으로 꼽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제어카드와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어카드 자체 결함을 일부 확인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원인분석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요양시설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의무화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1일부터 새로 설립되는 노인요양시설은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갖춘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갖춰야 한다. 이미 설립된 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같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계단의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비상시 열리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두 법률은 시설 입소자들의 낙상·실종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잠금장치가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 사이에서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노인요양 시설은 모두 이 같은 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치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다시 찾아온 광주의 '오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맑음	16/28
목포	맑음	14/22
여수	맑음	16/23
나주	맑음	14/28
완도	맑음	14/24
구례	맑음	12/29
강진	맑음	14/25
해남	맑음	14/26
장성	맑음	13/27

◇바다 날씨

지역	바다 날씨
서해	안개
남부	안개
남해	안개

◇물때

목적	출발	도착
목포	00:25	05:50
여수	07:31	01:25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2(토)	맑음	15/28
3(일)	맑음	15/23
4(월)	맑음	15/23
5(화)	맑음	12/25
6(수)	맑음	12/26
7(목)	맑음	14/24
8(금)	맑음	12/25

◇생활지수

- 수면: 70
- 운동: 50
- 빨래: 70

47개 대학 등록금 인하... 127개대는 동결

평균등록금 연간 667만원

176개 대 공시내용 분석

전국 4년제 대학의 1/4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30일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주요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된 항목은 대학의 등록금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수, 교원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 6개다.

201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등록금은 66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98.9%인 174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47개(26.7%)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고 127개(72.2%) 대학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1인당 등록금을 많이 내린 10개 학교를 살펴보면 정주대가 26만3100원(인하율 3.3%)로 1위다.

그다음으로 신한대(23만300원·인하율 2.7%), 청운대(7만4300원·1.0%), 상지대(6만6500원·1.0%), 서경대(6만5100원·0.8%), 위덕대(3만8400원·0.5%), 금강대(3

만6000원·0.5%), 한림대(3만5500원·0.5%), 남서울대(3만4100원·0.4%), 서울가톨릭대(3만3200원·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빈대는 1인당 등록금을 15만9200원, 호남신학대는 14만3000원을 올렸다. 두 대학의 인상률은 각각 2.3%다.

1인당 등록금은 한국산업기술대가 90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866만600원), 을지대(850만100원), 한국항공대(847만1800원), 이화여대(845만3300원), 신한대(841만9100원), 추계예술대(838만6900원), 한양대(838만300원), 성균관대(833만6400원), 홍익대(824만5500원) 순으로 파악됐다.

중앙승가대(174만원), 영산선학대(200만원), 서울시립대(238만9700원) 등 등록금이 낮은 대학들과 비교하면 6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올해 평균 등록금은 작년 666만7000원보다 3000원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과대학으로 바뀐 영향을 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에도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무등산국립공원 16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중심교~중심사~약사암 구간(1.4km)을 제외한 모든 탐방로는 ▲여름철(3~11월) 새벽 4시~오후 5시 ▲겨울철 새벽 4시~오후 4시까지만 산행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농촌 빈집털이범 신고

무안경찰, 30분만에 체포

농촌 빈집털이범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긴급 대응에 나선 경찰에 범행 30여분 만에 체포됐다. 무안경찰은 30일 농촌을 돌며 물건을 훔친 박모(47)씨 등 2명을 특수수검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8일 오전 10시20분께 신안군 지도면 김모(66)씨 부부의 집앞에서 "고물 삽니다, 계세요"라고 외친 후 담이 없자 물고추분쇄기(20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간 중 김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요 목을 점거하면서 30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약=임동현기자 jdh@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찍은 20대 징역형



○...범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지난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시 한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

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